

* 도술열 화상이 세 가지 빛장을 걸어 학자들에게 돌렸다. "풀을 헤치고 그옥함을 찾는 것은 다만 견성하고자 함인데, 대체 지금 당신의 본성은 어디 있소? 자성을 알면 생사를 벗는다 하는데, 눈의 광채를 땅에 떨어뜨릴 때 어떻게 허물을 벗으려오? 생사를 벗으면 가는 곳을 안다 했는데, 사대(四大)가 흩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오?"

* 나 해개가 말한다. "이 세 물음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처하는 곳마다 도리를 얻을지니,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리라.) 거친 음식은 금방 배가 부르고, 딱딱 씹어서 먹으면 쉬 깨지지 않는다."

* 승하여 가로되, "한 생각이 두루 무량겁을 관(觀)하니, 무량겁의 일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한 생각을 풀 수 있다면, 바로 그 풀 수 있는 사람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터.

兜率三關:
兜率悅和尚, 設三關, 問學者, 撥草參玄, 只顯圓性, 即今上人性在甚處, 識得自性, 方脫生死, 眼光落時, 作麼生脫, 脫得生死, 便知去處, 四大分離, 向甚處去, 無門曰, 若能下得此三轉語, 便可以隨處作主, 遇緣即宗, 其或未然, 序食易飽, 細嚼難飢, 頌曰, 一念普觀無量劫, 無量劫事即如今.

한형조

무문관 발방

76

도술의 수수께끼



그림 · 문병성

지들은 고려말 세속화된 불교의 타락과 소의를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 "목숨이 가물거리고 사내가 흩어지려 할 때 정신은 타들어가고 소견은 혼미하여 하늘에 오를 수도 땅으로 떨어갈 수도 없다. 두렵고 막막한 길을 슬슬한 혼이 홀로 떠날지니 창고에 그득한 재화가 무슨 소용이며, 늘어선 진척과 권속들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자업자득(自業自得), 대신 고통을 겪어질 사람도 없고, 인도해줄 지팡이도 없다. 아무도 너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수 없다(結社文)."

이런 경고에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은 불교와 별 인연이 없다. 불교는 세상의 고통, 인간의 허위와 기만에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가르침이다. 놀란 어린 영혼은 삶의 비밀과 자신의 본질을 찾아 손례를 떠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장애의 "풀을 헤쳐나가(撥草) 비밀을 열었다(參玄)." 여기서 풀은 길(道)을 닦고 있는 장애물들이다. 치고 또 쳐내도 앞을 막고 발을 감는 그 끈질김은 인간의 욕망과 무지와 꼭 닮았다.

그 길을 헤쳐 그옥한 비밀을 장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처하는 곳마다 도리를 얻는다." 선은 늘 육신이 영성이 되고, 실존이 곧 본질

"슬픔도 기쁨도 내것 아니네"

법은 우리의 눈길 닿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 아주 소박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일단 바르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하다.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고 그대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은 소멸하고 마니까. 모든 현상을

책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6



하고 유익하게 행동하는 일이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행과 계행에 열심이면 유익한 결과가 따라오고 자신과 남에 대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전심 전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훌륭한

모든 현상은 소멸 비어있는 본질 알면 마음은 자유로워 진다

하고 장한 일이다. 다만 놓쳐서는 안될 점이 있다. 그 일을 제대로 행하려면 남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도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한다. 자기 수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연 순수한 지 유념하여 주의해야 한다. 남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남에게 가르친 것을 자기 마음속

본질을 간파해 버린다. 법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랜 항해 끝에 망원경을 통해 찾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법은 바로 여기에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진정한 자신이다.

우리가 이 본질을 바로 볼 때, 거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 선과 악, 즐거움과 고통, 밝음과 어둠, 단과 남 모두 다 비어 있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본질을 알게 되면 '나'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수행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포기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참성정을 알아야만 한다. 그때에 비로소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 무엇이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열반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열반을 실현한 사람은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비록 그들은 꿀의 단맛을 알되 내가 꿀의 단맛을 맛보고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법의 길은 계속 향상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법은 나아감도 아니고 물러섬도 아니고 더구나 한자리에 서 있음은 더욱 더하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사대 흩어질때 가는곳 어디인가

육신엔 내가 없어...부처·지옥 만나도 무심하라

如今 敬爾一念, 敬如今 底人.
승려의 선은 임제의 종중에서 갈라진 황룡(1002~1069)과 양기(999~1049)가 이끌었다. 오조법연(?~1104)이 양기파의 종장이자, 지금 이 화두의 주인공인 도술종열(兜率從悅 1044~1091)은 황룡파의 기절이다. 아깝게도 마흔 여덟의 나이에 요절했다.

도술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남기고 갔다.

- 1) 선의 궁극은 견성, 즉 자신의 본질(性)을 보는 것이다. 그럼 너의 그 본질이란 게 지금 어디 있느냐. 2)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고 나면 질긴 생사의 굴레를 벗는다. 그렇지만 미적대다가 정작 죽음이 닥칠 때 어떻게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것인가. 3) 생사의 굴레를 벗고 나면,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 어디 물어보자, 육신이 흩어지고 명월이 굴길 때 그때 내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 세 물음은 얽혀 있다. 1)이 실재라면, 2)는 계기이고, 3)은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1)의 관문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다. 2) 두번째 관문인 불도의 '계기'는 심득하다. '이 일'이 한가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급박한 실존적 관심임을 충격적으로 일깨우고 있다.

이 되는 그 축복과 희망을 노래한다.

그러나 구경(究竟)은 멀리 있고 현실은 가깝다. 물질에 속박되고 욕망에 눈먼 우리네 범부들에게는 저너머의 꿈일 뿐이다. 무명(無明)의 종자(種子)와 망상(妄想)의 습기(習氣)가 한데 어울려 역순(逆順)에 회로(喜怒)하고, 시비(是非)에 애락(哀樂)하는 사람들은 기발 언덕과 다독일 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음과 미륵과 지장 등의 불보살들이 있다. 그 자비와 공력으로 수많은 대중들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한 생을 마감할 때 나귀의 뺨 속에 끌려들지 않고, 지옥의 끓는 가마 솥에도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전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관(觀)해 보라고 권한다.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한 것이어서 육신엔 내가 없다. 마음의 본질 또한 무상(無相)이라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자성(自性)은 태어난다고 생기는 것도,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극히 맑고 두렷하고 고요해, 마음과 경계 사이엔 틈이 없다. 이렇게만 부철하면 사바에 매이지 않고 대자유를 얻을 것이다. 혹 부처를 만나더라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지옥을 보더라도 두려워 하지 말라. 놀라거나 흔들리지 말고 무심하라. 이것이 비결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80

인지능력과 연기

인간은 머리만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능력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인지과학은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 정보과학, 내뇌생리학, 컴퓨터과학 등의 연구자가 개척한 학제간의 학문(interdisciplinary)으로, 복잡성의 과학이 형성되자 종전의 과학 주류와는 달리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의 구조를 이용하면 인간 지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인공두뇌'를 최대 관심사로 삼아 온 것이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일단은 뇌에 입력하고 그곳에서 기초,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뜻에서 인간은 우수한 정보 처리기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인간의 인지(認知)능력은 기초, 또는 정보처리가 핵심이 되므로 그 작업을 컴퓨터에 대신 맡기는, 즉 컴퓨터가 인간의 이성을 대신해 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5

는 '인공두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나온다. 이에따라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비판론과 컴퓨터가 인간의 이성을 더욱 원활하게 도울 것이라는 낙관론의 엇갈리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통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과대평가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장난기 많은 등네의 아동들은 길가에 빈강통이 놓여 있을 때 호박에 침을 주거나 수박을 부서뜨리는 장난기 많은 아이들의 행위에 게 지배당할 것이라는 비판론과 컴퓨터가 인간의 이성을 더욱 원활하게 도울 것이라는 낙관론의 엇갈리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통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과대평가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몸 전체로 대상인식 환경·습관 영향받아 정보처리 인지능력은 '연기'의 결과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것을 발로 차고 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담뱃뒤에 숨어서 본다.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강통인 줄 알고 행인들이 그것을 한껏 걸터앉아 발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킬킬거리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길가에 있을 때 발길질을 하고 싶은 것은 결코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고드름을 떨어뜨려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싶은 것, 벽에 낙서하고 싶어지는 일, 또

행동이며, 머리에서 생각하기에 앞서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이 머리만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외의 몸은 머리를 올려놓은 발함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머리를 포함한 몸 전체로서 머리와 대상의 관계에서만 물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카뮈의 명작 <이방인>의 주인공은 "태양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살인을 범한다. 종전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행동이며, 머리에서 생각하기에 앞서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이 머리만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외의 몸은 머리를 올려놓은 발함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머리를 포함한 몸 전체로서 머리와 대상의 관계에서만 물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카뮈의 명작 <이방인>의 주인공은 "태양이 너무 눈부셨기 때문에"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살인을 범한다. 종전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인간은 종전의 경제학에서 말해 온 것과 같이 이익만을 추구하는(합리적,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것)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이익타산 보다는 환경, 습관...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다. 사회학은 이것을 '몸속에 파묻혀 있는 사회'로 표현하는데 인간 존재는 '연기'로 꼭 착 있는 것이다. 인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행위는 단순한 이성이나 과거의 문화적 전통, 관습...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인간의 인지능력은 역사를 포함한 문화 전체와의 연기의 결과인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016 PCS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슨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h3>한화 G2-F21</h3> <p>절전기능 -세계최초의 광선서 착용 깨끗한 통화 자동 검색 기능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 17종의 다양한 전화 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 (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 계산기 기능 자기변호 송출 기능 비상전화 다이얼 기능</p> <p>크 기 125x44x26mm 무 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8분 배터리L 300분</p> <p>사은 가격 50,000원 (가입비만)</p>	<h3>한화 F31</h3> <p>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p> <p>크 기 107x43x20mm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p> <p>사은가격 75,000원 (가입비분납)</p>	<h3>삼성 애니콜</h3> <p>SMS서비스 이어마이크 폰 접속기능 음성 다이얼 가능 자기지역 번호 자동 다이얼 예약 통화 기능 알람 기능</p> <p>크 기 114x50x22mm 무 게 105g 연속통화 최대 240분/75시간 통화 대기</p> <p>사은가격 20,000원 (가입비분납)</p>	<h3>LGP-6200F</h3> <p>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려가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p> <p>크 기 107x45x25mm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p> <p>사은 가격 60,000원 (가입비분납)</p>	<h3>삼성 SPH-4700</h3> <p>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메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p> <p>크 기 116x45x23mm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p> <p>사은 가격 65,000원 (가입비분납)</p>
--	--	--	--	--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요금 납부 방법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결제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이월은 10,000원이 추가 됩니다
신용카드 20,000원 증정 증정
(부가서비스 자동연결 개월 무료이용 요금)